조선전기 철릭의 치수 및 형태분석

예 경 자*(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권 영 숙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조선전기 철릭유물 60여 점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및 실계측치를 이용하여 치수분석 및 형태분석을 행함으로써 조선전기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던 남자 포제 철릭의 원형설계의 기본구조 및 원리를 파악하여 현재 한국복식 포제 원형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Ⅱ. 연구방법

치수분석은 기본치수 24항목과 지수항목 26항목을 포함하여 총 50항목을 중심으로 SAS Package에 의한 통계분석을 행하였으며, 길이항목에 대한 너비항목의 비와 부분과 부분의 치수비를 중심으로 철릭의 유형별 치수비를 지수치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기본통계량과 상관도를 중심으로 철릭에 대한 조선전기의 시기별 치수변화와 부위별 치수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철릭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양식과 외관형태의 변화를 알아본 것이다. 또한 부위별 형태변화 및 구성양식을 깃과 소매, 그리고 섶의 외관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Ⅲ. 치수 및 형태분석

1. 시기별

조선전기 시기별 철릭의 형태변화는 깃과 소매양식의 변화가 주된 변화요소이며 衣裳比 또한 조선전기 각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대로 갈수록 철릭의 치수 및 외형은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철릭의 구성양식은 홑, 겹, 솜, 누비의 네가지 유형으로 고찰되었으며 각 양식에 대한 출현율은 35%, 38%, 24%, 3%로 나타나 홑과 겹으로 된 것이 73%로 많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깃모양은 예각형목판깃과 이중선이 있는 칼깃과 이중선 없는 칼깃의 세 유형이 나타났으며 예각형목판깃은 1400년대 중후기와 1500년대 초기에 많이 보이고 칼깃은 15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보편화되어 1500년대 중기를 기점으로 예각형목판깃은 사라지고 칼깃만 보인다.

철릭의 깃에 이중선이 보이는 것은 조선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나 1500년 중반이후 칼깃이 보편화되면서 이중선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1500년대 후반부터는 이중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소매형태는 窄袖形의 사선형태와 넓은 콩깍지형태의 두 종류이며 착수형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콩깍지형은 15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다.

섶양식은 모두 단섶이며 重裾形여밈으로 여밈량이 거의 95%에 달한다. 이러한 여밈량은 후대로 갈수록 여밈량의 폭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1500년대 후반에는 85%정도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구성양식별

홑, 겹, 솜, 누비 등의 구성양식별 철릭에 대한 치수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솜철릭이 겹철릭에 비해 품이 평균 약 2~3cm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누비철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길이항목의 치수가 적으며 너비항목의 치수는 크게 고찰되었다.

3. 깃양식별

깃양식에 의한 치수변화는 예각형목판깃형 철릭에서 칼깃형 철릭으로 철릭의 깃양식이 변화되면서 전체적인 치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각 치수항목의 평균치의 차이는 총길이가 10cm, 衣길이 13cm, 옆길이15cm, 섶길이 15cm, 깃길이 3cm정도로 길이항목에서 예각형목판깃형의 철릭이 크게 나타난 반면 품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예각형목판깃형의 철릭이 약간 작게 나타난다.

4. 소매형태별

소매형태에 따른 철릭의 치수는 착수형 철릭이 콩깍지형 철릭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총길이와 衣길이, 진동, 수구, 옆길이, 섶길이 등에서는 크게, 裳길이와 화장, 소매통, 깃나비 등에서는 작게 나타나 소매형태의 변화와 함께 의상비가 변화되었다. 총길이는 콩깍지형 철릭이 착수형 철릭에 비해 5cm정도 짧으며 진동은 4cm, 수구는 2.5cm 좁아지는 반면 화장과 소매통은 3cm정도가 증가한다. 품과 깃나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지수치 변화

衣와 裳의 길이의 비는 시대적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써 전체적인 비는 1550년대 중반의 1:1을 경계로 그 이전은 1:0.7~0.98, 그 이후는 1:1~1.33의 비율을 보인다.

총길이에 대한 화장의 비는 홑철릭과 겹철릭은 화장이 총길이보다 짧은 0.99와 0.97을 나타내고 솜철릭과 누비철릭에서는 화장이 총길이 보다 긴 1.02와 1.04를 나타낸다. 깃에서는 예각형목판깃형철릭은 0.91, 칼깃형 철릭은 1.05를 보이며 소매형태에서는 착수형 철릭이 0.97, 콩깍지형철릭이 1.04를 보여 총길이에 대한 화장의 비가 구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동에 대한 수구의 지수치는 평균 0.78로 구성양식별로는 겹철릭과 누비철릭에서 홑철릭과 솜철릭에서보다 작게 나타났고 깃양식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매형태별로는 착수형 철릭이 콩깍지형 철릭보다 높은 지수치를 보이고 있다

진동에 대한 소매통의 지수치는 평균 1로 나타났으며 구성양식별로는 홑철릭, 겹철릭, 솜철릭에서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누비철릭에서 0.92로 홑철릭, 겹철릭, 솜철릭에 비해 소매통이 좁았음을 알 수 있다. 깃양식별로는 예각형목판깃형 철릭보다 칼깃형 철릭에서 크게 나타나 칼깃형 철릭에서의 소매가 광수화가 됨을 보여 주며 착수형 철릭과 콩깍지형 철릭에서는 각 지수치가 0.95와 1.19로 나타나고 있다.

Ⅳ. 결 론

이상 조선전기 철릭의 치수 및 형태분석을 조선전기 각 시기별, 구성양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철릭의 구조를 각 항목의 계측평균치와 각 항목간의 지수치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선전기의 철릭의 외형의 구조변화는 깃과 소매양식, 그리고 의상비의 세 요소가 주요변화요소로 나타났으며 전기 중에서도 변화의 시기는 세 시기로 구분되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1기는 1400년대 말까지로 예각형목판깃에 착수형의 소매와 衣가 裳보다 더 긴 철릭이 보편화 된 시기이고 제2기는 1500년초반부터 중·후반까지로 예각형목판깃이 이중선양식의 칼깃으로 변화하였으며 衣裳比는 衣보다 裳이 더 길어졌고 제3기는 1500년대 후반부로 칼깃에 이중선이 없어지고 소매형태는 콩깍지형이 새로이 나타난다.